

『이색의 삶과 생각』에 대한 서평

이익주 지음, 일조각, 2013, 523쪽

이강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학부 부교수, 한국중세사 전공
sisko104@aks.ac.kr

I. 머리말

시립대학교 국사학과의 이익주 교수가 2013년 출간한 『이색의 삶과 생각』은, 목은 이색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적 탐구로서 실로 오랜만에 접하는 역작이다. 이색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어왔고, 한산이씨 문중에서도 수차례 공동연구가 진행되어 그 성과들이 출간된 바 있다. 그의 정치적 위상, 경제적 여건, 사회·사상적 견해 등이 그간의 검토에 힘입어 상당 부분 밝혀진 상태이다. 고려의 몰락 및 조선의 개창과정에서 그가 비극적으로 스러져간 과정 역시 대단히 구체적으로 해명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러한 이전의 연구들과는 ‘층위’를 달리하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이색이라는 인물을 ‘인물사적’ 견지에서 검토하면서도, 그 검토방식으로는 주로 ‘분야사적’ 접근을 취한 측면이 강했다. ‘특정 분야 속’ 이색의 행적과 업적을 거론하는 것에서 출발하곤 한 것이다. 그에 비해 이 연구는 명실공히 ‘이색 본인’에게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색의 관점에서 그의 삶을 바라보고 이색의 글을 통해 그의 생각을 재구성하였기 때문이다.

이익주 교수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른바 ‘세조구제(世祖舊制)’론으로 유명한 학자이다. 고려에 대한 원제국의 기본방침이 [정치적 간섭, 경제적 수탈 외에] 고려의 기존 제도와 관습만큼은 [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는] 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었고, 그러한 언명은 세조 쿠빌라이에게서 비롯되었다는 판단을 골자로 한 논리이다. 그의 1996년 박사학위 취득 이래 발표된 거의 모든 13-14세기사(이른바 “원간섭기”) 연구가 그의 이 연구를 ‘각주 1번’으로 인용하곤 한다. 학계에 실로 큰 영향을 미친 이 연구는 고려 후기 연구사의 방향을 바꾸어놓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한 그의 최근 연구는 ‘대외관계사’ 연구와 ‘개인사’ 연구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자가 고려와 원제국의 관계를 하나의 ‘틀’로 설명하는 맥락의 작업이라면, 후자는 고려 후기 주요 인물들의 문집을 분석하며 그들의 정체성, 지향점, 주변상황에 대한 대처방식 및 정서 등을 살피는 작업이었던 듯하다. 거시적 관점에서 진행되기 마련인 연구와, 미시사적 방법론을 취하며 진행되기 마련인 연구를 가히 동시에 진행했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저자가 이색이라는 인물의 삶과 생각을 연구하는 최적임자 중 하나인 이유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과로서의 이 책은, 학위논문을 통해서 그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결국 고려와 원제국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당시 고려인들이 특정한 국제환경과 내부 여건 하에서 어떤 삶을 영위했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갔는지를 파헤치는 데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평자는 저자의 10여 년 후배로서, 여러 공동활동을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누어 온 바 있지만, 연배 차가 꽤 나는 선배님인지라 주로 조언 말씀을 듣고 그를 발판 삼아 문제의식을 키워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려 후기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원제국이 고려인에게 가졌던 ‘의미’에 대한 판단이 다른 부분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면을 통해 드러낼 기회가 있으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던 터에, 이 책의 발간 소식을 듣게 되어 대단히 반가웠다. 비록 목은 이색은 평자가 그간 검토해온 연구 대상들(14세기 전반, 국왕들, 고려-원제국 간 교역)에서는 조금 비껴나 있지만, 능력껏 논평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II. 책의 구조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서문, 이색의 삶에 대한 정리, 그리고 그가 남긴 시문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추출한 그의 ‘생각’들에 대한 검토가 그것이다.

1. 서문

저자는 서문에서 이 책의 문제의식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개관도 제공하고 있다. 기술의 분량은 뒤에 이어지는 이색의 삶 정리에 비해 결코 적지 않으며, 평자가 특히 흥미롭게 느꼈던 지점도 적지 않았다. 저자가 내놓은 이색 인생의 전체적 ‘맥락’, ‘시문 위주’ 접근방식이 가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경계, 이 책의 정체성에 대한 저자 자신의 규정, 한 사람의 인생을 ‘시점에 따라 명멸하는 여러 다양한 면모의 총합’으로 간주한 저자의 시각에 이르기까지, 이색의 삶과 생각을 살피기 전에 그것을 10여 년간 관찰해온 저자의 문제의식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선독(先讀)해야 할 부분들이 그것이다. 그를 간단히 소개하고, 그에 대한 평자의 소감 또한 언급하도록 하겠다.

1) 이색의 삶은 ‘비극적’이었나

여러 상황에 처해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간 이색의 삶을 논하는 책의 첫머리에, 저자 스스로 목은의 인생을 다분히 ‘비극적’이었던 것으로 진단한 것이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온다.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원제국에 서의 입신을 고려했으나 원제국이 덜컥 망해버렸고, 고려왕조를 지키려 했으나 고려가 망해버렸으며, 유학의 확산에 노력했으나 그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는 평가와 고려인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불교와 가깝다는 비난까지 감수해야 했던 인물이 바로 목은이다. 그러한 설명을 듣고 보니 목은 이색이 대단히 비극적인 인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그가 처해 있던 이율배반적 상황이 그의 인생을 그러한 맥락으로 몰고 갔을 개연성이 의외로 커 보인다.

물론 당대의 명유이자 저명한 관료였던 그를 이렇게만 평가하는 것은

그를 일종의 '희생자'로 자리매김하는 온당치 못한 일일 수도 있다. 그는 어디까지나 사회질서를 주도하던 기독교 집단의 일원으로서, 중국과 고려의 관계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저자의 의도 또한 목은의 인생을 이렇듯 부정적으로 '감정'하는 데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그가 이러한 평가를 서문에 드러낸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가 했던 말들, 쓴 글들, 취해야 했던 입장들, 내려야 했던 결단들 모두에 일말의 불안감과 경계감, 회의감이 깔려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전면에서 내세움으로써 이색의 삶과 생각 그 밑바닥까지를 파헤쳐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내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불분명성', '교체', '변동'이 일종의 '상수'였던 시대를 살았던 이색이 그러한 시대에 의해 이른바 '수세'에 몰렸던 국면을 검토하는 한편, 그러한 시대에 '공세적으로' 대응해나갔던 국면에도 똑같이 주목하는 것이 어떠했을까 싶다. 일종의 불확정성이 지배하던 당시, 모든 이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때로는 소극적으로, 때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마련이었을 것이다. 그 시대의 일원이었던 목은 이색의 삶 또한 당연히 두 가지 맥락을 보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후 결론에서도 드러나듯이, 저자의 관점은 전자에 조금 더 기울어 있다. 저자가 후자적 관점에서 목은 이색의 삶을 진단해본다면 과연 어떠한 '상'이 상정될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해진다.

2) 시문(詩文) 연구: '우려'와 '정당성'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목은 이색의 저술, 그중에서도 시문들을 '직접적'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목은 이색 연구들이 정사류 기록을 검토의 근간으로 삼고 그의 문집 내 기술을 일종의 '2차적' 재료로 활용해온 것에 비하면, 저자가 취한 방법론은 매우 생경해 보이는 동시에 어찌 보면 이질적으로 다가올 만큼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정사류 기사에서는 상소문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생각이 거의 드러나지 않기 마련이어서, 기왕의 인물사 연구에서도 문집을 중요하게 활용해왔다. 그러나 문집의 내용, 특히 '시문'들의 내용을 중심축에 놓고, 오롯이 그것을 근거로 한 사람의 삶과 더 나아가 '생각'까지도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복원하려 한 시도는 가히 처음이라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저자의 이번 성과는 학계에 큰 영감이 되는 바가 있다.

다만 저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산문이 아닌 시문 분석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태생적·여건적 난점들이 있다. 시문 번역 자체가 어려운 점도 없지 않거니와, ‘정서의 압축물’이라 할 수 있을 시문이 과연 저자(예컨대 목은 이색)의 감정선을 넘어 그의 이성까지 전달해주는 자료로 간주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항상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감정선 또한 사람의 생각의 흐름을 엿보게 하거나 예측·전망케 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합리적 사유 못지않게 한 인간의 삶과 생각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여서, 정서와 감정선의 시계열적 복원 없이는 삶과 사고 또한 복원될 수 없다는 판단이 가능해진다. 시문의 사료로서의 가치는 그 때문에라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 여겨진다.

‘남에게 의뢰받아 쓴 글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한계’ 또한 마찬가지이다. 저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런 글들의 기술과정에는 ‘의뢰자의 입장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것이 기술된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또한 결국 목은 이색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부탁’을 받은 글을 ‘쓰기로 결정’하고, 그 글에 채워 넣고자 ‘선정’한 내용들은 결국 그러한 상황(특정 주제의 글을 집필해줄 것을 의뢰받은 상황)에 대한 그의 대응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집필된 글(시문)에 실린 내용이 목은 이색의 원 생각과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짐작은 사실 무의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면의 내용과 다른 또 다른 저류가 그의 뇌리에 흐르고 있었을 것이라는 예단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목은 이색의 면모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아집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의뢰받아’ 쓴 글들 역시, 목은 이색의 여러 면모를 검토하는 작업에서 재료로 삼아도 하등 문제될 것이 없는 대상이라 할 만하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목은 이색의 면모와는 다른 내용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그의 것으로 인정하면 될 일이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저자가 취한 방식이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3) ‘연구서’와 ‘평전’ 사이, 또는 그를 넘어서

저자는 스스로 이 책을 이색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가 아니라고 하였다. 아직 학계에서 관련 연구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책의 목표 자체가 우선은 목은 이색의 생각이 형성되고 진화하며 바뀌어가는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자는 이 책이 목은 이색의 평전 또한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평전은 그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집적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 하였다.

평자는 저자의 그러한 발언이 상당히 겸허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의 검토가 아직 자신뿐만 아니라 학계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책임 있는 언급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자가 이 책에서 제시한 연구방향은 이후 학계가 깊이 참조해야 할 바가 있으므로, 이 책 자체를 목은 연구서나 목은 평전의 새로운 시도나 유형으로 제시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더 나아가, 이 책 자체의 구성을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강하는 것도 한 방법인 듯하다. 기존의 연구에 대한 인용, 그에 대한 저자 자신의 분석을 대폭 보강하고, 이색의 삶에 대한 저자의 평가도 더욱 적극적으로 넣는 식으로 말이다.

물론 이 책의 목표가 목은 시의 시계열적 분석에 있었던 만큼, 이러한 주문은 무의미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평전의 기술 또한 결국 그의 일생과 작품을 토대로 하는 만큼 결코 이 책에서 시도한 작업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며, 여러 작업을 선후의 순서를 두어 전개할 것도 아닌 것 같다. 아울러 이 책이 이색의 여러 행적을 짚어가면서 목은 이색의 서술을 토대로 한 덕택에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을 많이 밝힌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행적에 대한 기왕의 연구를 거의 소개하지 않아 그 정치사적·경제사적·외교사적 의미가 행간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단계적으로 작업을 진행해나가려 한 저자의 신중함이, 소개된 목은 시의 함의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4) '사람은 변하는 동물'

저자는 목은 이색에 대한 여러 연구사적 관점을 소개하면서, 그간 이색에 대해 다분히 '도식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판단이 제기되어왔음을 거론하였다. 한 사람의 사상에도 여러 층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를 충분히 참작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이다. 사실 사람이 태어나 겪는 상황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그로 인해 일개인의 생각은 여러 갈래로

여러 차례 변동하기 마련이다. 이색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공민왕대 개혁 국면에서의 처신, 유학과 불교에 대한 관점, 전체개혁에서 그가 취한 입장, 그리고 이러한 ‘선택들’로 인한 스스로의 입지 변화 등은 그야말로 혼란과 고뇌의 소산이자 또 다른 고민을 부르는 단초이기도 했던 것 같다. 그로 인해 그의 입장이 여러 갈래로 분기했고 분야별로도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인데, 그러한 모습을 그간의 이색 연구에서 충분히 해명해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저자의 지적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지적을 통해 저자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결국 ‘한 사람의 생각이 평생 똑같이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라 생각된다. 극히 가변적이고 유동적이기도 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동물에게 하나의 단일한 사상이 있었다고 전제하는 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인 일이다. 저자의 지적처럼 ‘사상’보다는 ‘생각’이, 그리고 그 ‘생각’의 ‘진화’가 있었을 따름이다. 그럼에도 역사학자들은 흔히 과거인들의 생각을 결과론적 관점에서 단정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고, 그 때문에라도 그러한 시험에서 탈출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게 된다.

그를 위해 저자가 시도한 것이 바로 목은 이색이 보였던 여러 생각의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사상과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시점’의 문제를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한 사람의 생각을 논평할 때 논평하더라도, 그 생각은 오로지 특정 시점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고 ‘특정’함으로써, 누군가의 사고와 사상을 ‘압축된 시점에 한정하여 논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책임 있고도 현실적인, 그리고 당시의 사실(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검토일 수 있다는 저자의 문제의식에 전폭적으로 공감한다. 한 인간을 표현하는 형용사들이 그의 생애 중 어느 특정한 시점에 한해서만 유효한 것일 수 있다는 관점은 그간 평자가 14세기 전반의 국왕과 관료들을 검토하면서 견지해온 것이기도 하며, “원간섭기”라는 명칭에 대한 거부가 학계에 확산되기를 희망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5) 『목은집』이 전하는 진실의 ‘양(量)’

한 가지 사족을 덧붙이고자 한다. 서문에는 『목은집』이 원래부터

70권이었는지, 아니면 55권이었는지, 전자의 경우라면 나머지 책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전하지 않는 것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저자는 그 논쟁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른바 ‘70권설’을 비판하는 동시에 ‘55권설’을 지지하는 자신의 입장을 나름대로 간결하고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 평자로서는 그간 미처 몰랐던 부분인지라 흥미롭게 읽었던 대목이기도 하다.

그의 이러한 입장표명은 그의 말마따나 ‘사료분석에 선행되어야 할 통상적 사료비판 과정’으로서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평자는 삭제설을 부정하며 저자가 내세운 몇 가지 이유에 대해 또 다른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실제 개술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으니, 삭제 대신 개술을 통한 『목은집』 내용 조정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저자의 짐작은 충분히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술과 병행하여 삭제, 인멸이 같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도 아직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더 나아가, 현전 『목은집』의 온전함 여부가 과연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또 다른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시기별 목은 시 분석을 통해 그의 삶과 생각을 재구성하려 한 저자의 입장에서는, 현전 『목은집』이 그의 [시문] 저술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당연히 중요할 것이다. 그런 만큼 ‘그렇지 못할’ 가능성을 따져보고,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불식하려 한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목은집』의 내용이 설령 목은 이색의 시문들 중 ‘중요한 일부’를 결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목은 이색의 삶의 모습을 ‘현재 담고 있는 시문의 내용만큼은’ 전하고 있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색의 삶과 생각은 결국 그가 남긴 기술 중 ‘현전하는’ 것을 통해서만 확인·복원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의 삶과 생각을 100% 복원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작업인 데다가, 목은의 삶과 생각 자체가 (저자가 역설한 바와 같이) 시시각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한다면, 이 책을 통해 재구성된 목은의 사고(思考)가 [이론적으로 상정되는 목은 이색의 사고 ‘총량’보다 적을 가능성을 적어도 저자의 관점에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2. 목은의 삶에 대한 정리: <2장. 이색의 삶>

흥미로운 서문에 이어, 저자는 이색의 생애를 총 4개의 시기로 나눠 살펴보았다. 1328년 출생한 이래 부친 이곡의 사망으로 첫 좌절을 겪은 1351년까지의 시기를 “성장, 수학기”로 설정해 살펴보았고, 공민왕의 즉위를 즈음하여 본격적인 관료생활을 시작한 후 1350-1360년대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1374년 공민왕 시해로 정계에서 멀어져간 시점까지의 시기를 “관직활동기”로 설정해 검토하였다. 우왕의 즉위 후 관력이 일시적으로 재개되긴 했으나 다시금 퇴직하는 와중에 정계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문장가로서의 명성만 보전하게 된 시기는 “퇴직·은거기”로 설정해 검토하였고, 우왕 14년의 위화도회군, 이성계 무장세력과 신흥유신들의 득세 속에 정치적 공격을 받게 된 시기는 “정치적 시련기”로 규정하고 검토하였다.

저자의 정리가 워낙 상세하기도 하거니와, 시문을 통해 종래 알려진 사실관계를 충실히 보완하고 있기에 별다른 논평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색을 중심으로 정리된’ 고려 후기, 말기사 기술이기도 해서, ‘색다른 관점에서 이 시기 고려의 역사를 살피는’ 재미가 있다. 그리고 2장에서 소개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 책의 구조와 관련하여 그 압권에 해당하는 ‘작품연보’를 언급하고자 한다. <목은시고>에 수록된 작품들을 저술시점 순으로 연표화한 것으로서, 이 책의 최대 업적 중 하나인 동시에 앞으로의 목은 연구에 크게 기여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3. 목은의 생각에 대한 정리: <3장. 이색의 현실인식>

어찌 보면 이 책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3장과 뒤따라 이어지는 ‘결론’ 부분에서 저자는 이색의 생각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원-명 교체에 대한 생각, 이른바 ‘유-불’ 교체에 대한 생각, 그리고 ‘왕조의 교체’에 대한 생각이 그것이다. 이색을 분석하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라고도 하겠는데, 이러한 검토는 서문에서 이미 예고된 것이기도 하다. 격동의 역류 속에 있었던 이색의 갈등과 고뇌가 상상 이상이었을 것임을 쉽게 짐작케 하는 지점들이라는 점에서, 저자의 적절한 선택으로 다가온다.

우선 원-명 교체와 관련하여, 저자는 쇄망해가는 원에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끼던 이색의 모습, 원의 일시적 부흥에 기뻐하기도 했던 이색의 모습을 소개하고, 뒤이어 원의 부활이 불가능해진 후에는 일종의 형세론적 관점에서 대명 사대를 당연시하던 이색의 모습, 새로운 관계를 통한 태평의 도래를 기대하는 모습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유-불 교체'와 관련해서는 목은에 대해 '유교의 종장'이라는 평가와 '부처에 아첨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타나게 된 연유를 정리하였다. 부처를 '대성인'이라 평하면서도 불교 자체는 이단시한 점, 『주역』 학습에 적극 나섰고 평생 중국 고(古) 명유들을 존중한 점 등을 소개하면서도, 박식한 불교지식으로 신자들과 적극 교류했던 모습 또한 여과 없이 거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조의 교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검토방식을 취하였다. 우왕에 대한 비판과 그리움, 귀양길에서 느낀 회한, 정도전에 대한 애증, 그리고 끝까지 유지했던 정계복귀의 의지 등을 '고려'를 향한 상념으로 소개하는 동시에, 신생 조선왕조에 참여하지는 않으면서도 그 건국은 운세의 순환으로 인식해 별다른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았던 모습 역시 함께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저자는 책의 말미에서 목은 이색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목은의 부족했던 점'과 관련하여, 그 자신의 행동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제대로 또는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점을 든 것이 주목된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 닥친 변화의 크기와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곁들이고 있다. 목은 이색에 대한 대단히 엄혹하고도 통렬한 비판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자신의 행동과 선택이 낳았을 파장과 영향에 대한 이색 본인의 성찰 여부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색의 '구법' 존중이 결국 '구폐'의 척결을 막는 장애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이 부분에서는 저자의 평가가 어느 정도 성립된다. 그러나 원-명의 교체처럼 이색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던 부분, 유교-불교 문제처럼 균형감(?)을 갖춘 '무고한 신자(信者)'들이 '중간에 길 수밖엔 없었던' 사안들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들에서는 저자의 비판이 성립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목은 이색이 시대의 변화를 (충분히 그리고 적절히) 읽지 못했다는 평가 또한 마찬가지이다. 물론 저자 역시 그러한 평가가 결론론적 평가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평자도 그렇게 생각한다. 어떤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나, 국정의 발목을 잡았던 부패관료나, 문제의식이 부재했던 무능 관료가 아니었던 당시의 목은 이색에게, 그가 실제로 보였던 행동과 행적 이상의 '무언가를 더 보였기를' 요구하는 것, 더 많은 '혜안을 지녔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무리라 생각한다. 오늘날의 우리 또한 우리의 운신의 폭을 제약하는 변수들에 힘겨워하며, 그를 넘어서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임을 순간순간 절감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저자의 최종 판단이 저자가 경계했던 결과론적 시각의 영역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운 점이 있다. 저자는 이색의 '입장'에 대한 논평에서, 위의 세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는 이색의 '최종적' 입장을 (공민왕의 이른바 '반원운동' 이후 본격화된) 대명사대론, 성리학자로서의 정체성 견지, 그리고 체제유지를 위한 구범 옹호 등으로 정리한 바 있다. 저자의 관점대로라면 이러한 입장들은 이색의 인생이 어느 정도 경과한 이후 정형화된 것들로서, 그의 초기 입장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 것들일 수도 있어, 과연 이러한 정리가 필요했는지 회의가 든다. 그간의 검토 내용을 정리하려는 의지의 소산으로 보이긴 하나, 저자가 견지한 관점에 모순되는 대목이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저자가 이색의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거론한 면모들, 예컨대 원의 위세를 업고 권력에 접근하려 하지 않은 점, 불교에 끝내 귀의하지 않은 점 역시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평가, 적어도 특정 시점의 목은이 보였던 모습과는 무관할 수 있는 평가가 아닌가 한다.

저자가 이색의 삶을 '성공한 삶으로 평가하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는 맥락의 입장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성공한 삶', '실패한 삶' 등의 인식을 드러낸 점 또한 유사한 비판에 직면할 소지가 있다. 완전무결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두 자신의 허물에 대한 후대의 비판을 감수해야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 인간의 삶 자체를 성공 또는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이색의 삶과 생각을 시계열적으로 '촘촘히' 살펴본 저자까지도, 좋게 말하면 '포괄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폭력적'인 이러한 평을 시도한 것은 사실 의외라고 할 수 있다.

III. 제언

마지막으로, 이 책의 내용에 대해 평자가 느낀 소회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고려인들의 ‘과거사’ 인식: 이색의 캐릭터 속 ‘과거 이해’의 수위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은 이색의 삶과 생각을 시계열적으로 재정리하여 그 변화과정을 너무나 생생하게 독자들과 연구자들에게 전달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목은이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동료 유지들의 심성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거나 심지어 그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기도 했음을 감안한다면, 저자의 이 같은 정리는 이색 개인의 삶과 생각을 시기별로 정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당시인들 다수의 사고와 정서를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고려 후기사 연구를 위한 대단히 귀중한 성취라 할 만한데, 개개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며 하나의 총합을 이루었던 고려사회를 바라볼 새로운 관점의 구축을 위해서라도 필수 불가결한 작업이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아쉬운 지점들이 없지는 않다. 저자가 시기별로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보인 고려인들의 모습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으로, 이 고려인들의 뇌리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을 (시각과 사고의) ‘대상’들, 즉 ‘(고려인들이 처한) 상황’ 또는 ‘(고려인들과 마주하던 상대방으로서의) 객체’ 등이 노정했을 시계열적 변화에 대해서는 거의 기술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그 중 하나이다. ‘원제국’이라는 객체 또는 대상이 그 단적인 예라 하겠는데, 당시 원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점에 대한 목은의 이해는 시문 속 여러 언급에 잘 드러나 있고, 그에 어떻게 대응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색의 시점별 사고 변화가 확인된다. 그러나 100년의 역사를 지녔던 원제국의 ‘그간의 역사’에 대한 이색의 인식은 이 책에 잘 드러나 있지 않다. 이색부터가 시문에 그런 인식을 별로 표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그의 시문과 산문에 그런 언급들이 전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오랜 기간을 거쳐 목은 이색을 탐구해온 저자 역시 이색의 과거사 인식 양상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이 본서에 담기지 않은 결과, 목은으로서는 ‘현재’에 해당하는 시점의 원제국에 대한 이색의 시각만 이 책의 논의 대상이 되었고, 그러한 원제국의 각종 제도, 정책, 지향, 인적 구성 및 고려와의 관계가 보여온 ‘지난 역사’의 맥락에 대한 목은의 시각과 판단은 논의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 아닌가 한다. 한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 단면이 ‘이전의 내력’, ‘흘러간 역사’에 대한 이해와 인지임을 감안한다면, 한 사람의 삶과 생각을 복원하는 데 그의 ‘현대사 인식 추이’만 거론하고 ‘과거사 인식 양태’는 놓친 것이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주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객체의 변화에도 주목하는 이유, 객체의 변화상에 대한 주체의 인식 또한 주체의 삶과 사고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 단면이라는 점 등이 이 책을 소비하는 학계의 향후 연거에서 환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이색과 ‘동시대인’들과의 관계: ‘바로미터’로서의 효용

아울러 목은 이색이라는 인물이 과연 동시대인들과 어떤 관계에 있었던 인물인지의 여부도 좀 더 논의되어야 할 것 같다. 앞서 평자는 저자의 업적을 치하하며, 이색의 삶과 생각에 대한 해명은 당시 고려인들의 삶과 생각을 해명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말한 바 있다. 엄밀히 말해 그것은 물리적·사료적 근거를 갖고 한 치하는 아니다. 이색의 삶과 생각이 당시 사람들의 그것을 얼마나 대변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평자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색이 당시 사람들의 생활, 삶, 정서, 정체성을 보여주는 ‘측정계’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나 했는지, 또는 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이 책에는 거의 드러나 있지 않은 점이 아쉽게 다가온다는 얘기이다. 어찌 보면 이 문제가, 『목은집』이 과연 이색의 저술 전체를 다 담고 있는 책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다. 목은 이색의 사회적 측정계로서의 면모가 강하게 확인될 경우(예컨대 정치세력의 일원으로서든, 문장가 커뮤니티의 멤버로서든, 원제국 내 수학생 및 관료출신 동우회의 구성원으로서든) 그를 살펴보는 의미가 배가되겠지만, 반대의 경우 목은 이색 연구의 의미는 반감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저자는 판단을 내리고 있으리라 생각되

는데, 이후의 연구에서 그것을 밝혀주길 기대한다.

물론 비교대상들을 선별, 선정하는 작업 자체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비교대상을 선정하기에 앞서 비교의 지점들을 먼저 정해야 하므로,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비교검토에 앞서 목은 이색의 생애 재구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라는 점 또한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두 작업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생애 재구성을 통한 비교지점 확보도 가능하지만, 비교지점들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생애 재구성을 위해 강조, 부각되어야 할 한 인물의 일생상의 계기들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교 대상이 되었으면 하는 인물들로는 무엇보다도 서한을 교환했던 이들이 떠오른다. 또 정치적으로 갈등했던 이들과의 비교도 가능하다. 그와 동시대 인물로 꼽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지 몰라도 그의 좌주이자 그의 부친의 좌주이기도 했던 이제현도 비교 대상으로 삼아 볼 만하다. 이 여러 인물들과 이색 간의 교류를 더 논의해주시사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색과 교류했던 이들 개개인의 인생에 대한 조망이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물론 이들의 문집과 저술 활동에 대한 정밀한 검토, 이들 개개인에 대한 평전 수준의 연구가 진행된 이후에나 가능할 법한 제안으로 받아들임직하다. 그저 당시의 여러 인물과 인물군으로 구성되었을 ‘인물지형’ 속 어느 지점에 이색이 놓여 있었는지를 궁금해하는 마음에서 무책임하게 제안해 본다.

3. 조공-책봉관계 논쟁은 어디로 가는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저지는 고려와 원제국의 관계를 전통적 조공-책봉 관계의 한 변용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학계 내에서 논쟁이 진행 중이다. 원제국은 내적구성이나 강역 범위 등이 전통 한족왕족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였으므로, 고려와의 관계를 전통적 조공-책봉관계의 틀에서 검토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 저자의 입장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양쪽의 입장 모두 일리가 있어, 평자는 두 입장 사이의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솔직히 이 논쟁은 현재 다소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무엇이든 새로운 시도가 이뤄져야 교착상태에 빠진 이 논란이 하나 또는 복수의 유의미한

방향으로 진행하거나 분기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새로운 시도의 단초는 결국은 1차 사료에서 제공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사고'의 문제가 중요하다. 당시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사고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사고했는지가 결국 양국 관계의 시발점이었을 것임을 감안하면, 1차 사료가 전하는 당시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위 논쟁을 종식을 앞당길 새로운 매개가 될 수도 있다.

저자의 이번 업적이 그 단초를 여는 중요한 기점 중 하나가 될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저자의 신중함 때문인지 그는 이 책에서 철저히 분석 및 재구성에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역시 인정하지 못할 비는 아니지만, 자신의 이러한 연구가 현재의 고착된 논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전망과 희망을 피력하는 것이 결코 허물은 아닐 것이다. 비록 원제국 말엽에 인생의 여정을 시작한 목은 이색이긴 하지만, 주지하듯이 원제국의 영향은 오히려 원제국이 북쪽으로 사라진 이후인 14세기 후반 한반도에 그 그림자를 더욱 짙게 드리웠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 점에서 이색이라는 인물의 삶과 생각은 당시의 역사상에서 아직 해명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데 적지 않은 단서가 된다. 저자가 개입된 역사논쟁이 '이색'이라는 변수를 갖고 어떤 방향으로 새로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적절한 기회를 통해 밝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IV. 맺음말

평자 또한 그간 짧은 시간 연구를 진행하면서 고려와 원제국 간 이른바 '경계'에 처했던 인물들을 많이 접해왔다. 충선왕 또한 그런 인물 중 하나로, 대개 그러한 인물들이 자신들의 경계성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 양쪽 무대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고 어떤 활동을 했는가에 검토의 초점을 맞춰왔다. 그리고 그런 인물들이 양쪽의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 것에 대한 검토에 머물지 않고, 양 세계, 2개의 질서를 자신의 생애, 고려라는 사회 내에 어떻게 융합시켰는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색의 경우 그의 세계관과 사고체계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원제국이 정작 자신의 활동 최전성기에는 부재했던 관계로, 혼란과

혼돈을 겪고 중국에는 생을 '비극적으로' 마감했지만, 그 역시 당시 사람들의 정서를 어느 정도 공유하였다. 하나의 질서만 존재했던 고려 전기, 중기의 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대신 2개의 질서가 서로 충돌하거나 충돌하지 않는 경우가 다양하게 혼재하는 상황에 익숙한 상태에서 그 2개의 질서에 대해 나름의 관점을 견지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간 여러 사람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이색에 대한 저자의 접근방식은 평자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다. 물론 평자가 살펴보려는 인물들 중 목은 이색이 남긴 자료에 상응하는 양의 정보를 남긴 인물은 거의 없어, 저자의 성취에 준하는 성과를 평자도 고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정보의 양은 핑계에 불과한 일일 수 있다. 관점을 설정하기에 따라, 기존 자료도 달리 보일 수 있음을 직접 실천으로 보여준 저자의 접근방식이 평자뿐 아니라 독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